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전제성*

- I. 서론
- II. 인도네시아 근대사와 일본점령기
- III.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 IV. 일본점령기의 고통과 기회
- V. 결론

I. 서론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던 현재의 인도네시아 지역은 1942년 3월에 일본군에게 점령되었으며 1945년 8월까지 일본군정을 경험했다. 3년 반의 일본점령 시기에 인도네시아인들은 자원을 수탈당하고 강제노역에 동원되어야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민족지도자들이 석방되었고 일본군정과 협력하면서 민족주의적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일본의 항복 이틀 만인 1945년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선언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점령군은 자원 수탈과 노동력 착취를 추구한 외국점령 세력인 동시에 인도네시아 독립을 간접적으로 촉진한 세력이라는 '이중적 이미지'가 상정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이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일본점령기의 역사적 위상에 관해서 논쟁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점령기의 이중적 이미지를 인도네시아인들 자신이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을 통해서 일본점령기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역사인식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역사교과서는 국민일반을 위한 역사교육의 결정판이므로 역사 인식에 관한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내용 분석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동아시아 연대를 위해 기초 자료를 축적한다는 실천적인 가치도 담고 있다고 본다.

II. 인도네시아 근대사와 일본점령기

1.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와 민족주의운동의 발흥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지역은 네덜란드가 독점적으로 장악할 때까지 향신료 교역권 쟁탈을 위한 서양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15~16세기 유럽 시장에서 정향(clove), 육두구 열매(nutmeg) 및 그 껍질(mace)과 같은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렸고 이 향신료가 나던 곳은 인도네시아의 말루꾸(Maluku) 제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602년에 영국 동인도회사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가 설립된 뒤에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와의 향료교역에서 경쟁국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VOC는 1619년에 지금의 자카르타(Jakarta)인 바타비아(Batavia)를 근거지로 삼아 향신료 무역의 항로와 항만을 통제하는 “해역지배”를 실현하였다. 1619년부터 1799년까지 지속된 VOC 지배시기에 자바인들은 심대한 고통을 받았다. 복음화를 내세웠던 스페인 식민주의나 문명화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영국 식민주의

와 달리, 네덜란드 VOC는 어떠한 이념이나 대의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회사로서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C는 재정난과 부패로 고전하다가 엄청난 빚만 국가에 떠넘기고 VOC는 파산하였다(신윤환 1999, 141-50; 유인선 1989, 20-21).

VOC의 파산 이후 인도네시아 지역은 1800년부터 일본군이 점령하는 1942년까지 네덜란드의 직접통치를 받게 되고 “네덜란드령동인도”(Nederlands Oost-Indie)라 불리게 된다. VOC 해산 이후 전개된 프랑스 및 영국과의 경쟁에서 네덜란드가 주도권을 되찾았고, 자바전쟁이 끝나는 1830년에 이르면 네덜란드의 직접통치가 확고해 진다. 6년간(1825~1830년) 적어도 20만 명의 자바인이 사망한 자바전쟁은 자바의 귀족들이 지닌 마지막 입지가 무너진 사건이었으며 이후 거의 모든 자바의 귀족들이 네덜란드 편으로 넘어갔다(Ricklefs 1993, 109-18).

1869년 수에즈운하의 개통과 대형증기선의 발명에 힘입어 동양과 서구의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상품시장을 확보하려는 서구열강들이 영토확장 욕구를 불태울 때, 네덜란드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바섬과 말루꾸 및 외방도서의 일부 해안도시에 제한되어 있던 통치지역을 전체 도서지역과 그 내지로 확대하고자 진격해 들어갔고 1920년경에는 현재의 인도네시아에 해당되는 광대한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게 되었다(Ricklefs 1993, 145-46).

식민정책이 강제경작제(Cultuurstelsel)에서 자유주의정책(Liberal Policy)으로 바뀌고 다소 인도주의적인 윤리정책(Ethical Policy)이 도입되었지만, 네덜란드의 식민통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의 자원과 노동을 약탈하는 과정이었다.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뒤늦게 현지인 교육을 시행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경제 하부구조를 건설하였지만, 네덜란드의 목적은 오로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의 수탈에 있었다. 이를테면 식민시기 인도네시아의 도로, 철도, 항만, 통신망, 교육수준은 이웃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보다 낙후된 상태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학자들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학자들 중에서도 ‘네덜란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감히 주장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신윤희 1999, 141).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가장 확실한 유산은 국경이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영토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지역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네덜란드 식민통치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3천여개의 섬에 산개된 종교적 종족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막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를 상상하게 되었다(앤더슨 2002, 153-160, 171-74).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계몽적인 교육기관, 이익집단, 이슬람단체, 공산주의운동이 출현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독립을 공식적인 목표로 하여 등장한 최초의 정치세력은 1927년 인도네시아국민당(PNI: Partai Nasional Indonesia)이었다. PNI는 반동공과대학(ITB)을 막 졸업한 수카르노(Sukarno)가 이끌던 반동스터디클럽과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이 규합하여 설립한 정당으로 불과 2년 만에 당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PNI는 “한 국가 인도네시아, 한 민족 인도네시아인, 한 언어 인도네시아어”(Satu Negara Indonesia, Satu Bangsa Indonesia, Satu Bahasa Indonesia)라고 하는 “청년선언”(Sumpah Pemuda)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인도네시아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식민당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1933년에 수카르노를 반국가혐의로 체포 수감하고 잠깐 풀어주었다가 다시 구속하여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뉴기니 섬으로 추방하였다. 수카르노와 독립운동가들은 일본군이 진주할 때까지 이 섬에 발이 묶여 있게 된다. PNI의 성쇠에서 알 수 있듯이, 1929년 세계대공황을 기점으로 식민당국이 탄압을 강화한 결과 민족주의운동이 구심점과 대중적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본군의 점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신윤희 1991, 170).

2. 일본점령과 독립선언

네덜란드는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위협감을 느껴 1899년 이후

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일본인들을 ‘명예유럽인’으로 대접해 주었다(앤더슨 2002, 160).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사업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졌고 일본상인들의 침투는 20세기 전반기에 급속하게 심화되어서 1909년에 천명 미만이던 일본인 수는 1930년대 초반에는 7천명에 육박했다. 처음에는 외판원의 형태로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는 점포를 차린 소매상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1935년의 시점에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거주 일본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상업에 종사했으며, 그 다음이 어업, 제조업, 농업의 순이었다. 일본과 네덜란드령 동인도간의 무역액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10년에 3백만 엔 미만이었던 무역액이 1919년과 1924~28년 사이에는 1천7백~8백만 엔에 육박하였다. 값싼 일본산 면직물이 네덜란드, 영국, 중국의 면직물을 압도하여 1936년에는 자바와 마두라(Madura)의 면직물 수입총액의 95.5%를 일본산이 차지하게 되었다(Yoshitada 1993).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태평양 전쟁 이전에 일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르면 일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교역에서 자원수탈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된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손에 넣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원유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원유 수입의 80%를 미국산에 의존하던 상황(양승윤 1995, 138)에서 일본이 중국대륙에서 전면철수하지 않으면 원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이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적인 원유공급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1941년 7월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전 지역을 장악하고 12월 7일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여 미국의 태평양 방위력을 무력

1) 1910년대에는 일본인 매춘여성들도 대거 활약했다. 1912년에 1,052명의 여성체류자중의 91.5%가 매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매춘금지조치와 일본남성들의 가족 동반 증가로 인해 일본인 매춘여성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Yoshitada 1993).

화시킨 지 불과 5개월만에 동남아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해 버렸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공격은 1942년 1월 25일에 칼리만판(Kalimantan)의 항구도시 발릭빠판(Balikpapan)을 점령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2월 하순 연합군의 함대를 상대로 한 자바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함으로써 인도네시아군도에서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어 3월 8일 동부자바의 소도시 칼리자띠(Kalijati)에서 네덜란드가 일본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세기 반에 걸친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가 종식되고 3년 반의 일본점령기가 시작되었다(신윤환 1991, 173; 양승윤 1995, 131, 134).

인도네시아인 대다수는 위기에 처한 네덜란드 군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병사들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인들에게 패배의 대가는 가혹했다. 약 17만 명의 유럽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 중에서 8만 명은 6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 수용소의 여건이 열악하여 네덜란드 군인의 20%, 남성민간인의 40%, 여성의 13%, 어린이의 10%가 사망했다(Ricklefs 1993, 199-200). 또한 적지 않은 수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히스 1995, 65-76, 158-173, 288-290).

일본군정은 네덜란드식민국가의 철용성을 거의 부서버렸다. 일본군은 통합되어 있었던 영토를 분할 통치하였다. 자바는 일본 육군 제16사단이, 수마프라는 25사단이, 동인도네시아는 해군이 관할하였으며 지역마다 다른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지역간 인사교류는 물론이고 행정적 접촉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또한 식민지수출경제가 전쟁으로 붕괴되자 식민국가를 지탱해주었던 재정이 규율과 더불어 붕괴하였다. 네덜란드 관료들이 갑작스럽게 제거되고 경험이 부족한 자바인들을 대거 승진되면서 국가기구의 효율성이 크게 손상되었던 점도 식민국가의 붕괴에 기여했다(앤더슨 1992, 128-29).

일본의 점령은 네덜란드 식민통치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파괴해 버렸다고 이야기된다. “네덜란드의 무

기력한 항복과 퇴각”은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 각인된 네덜란드 불멸 신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으며 일본군이 승전 후의 인도네시아 독립을 약속하면서 전쟁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때마다 독립이란 목표를 강조한 결과 독립의식이 인도네시아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 12세기 자바의 자야바야(Jayabaya)라는 왕이 예언했다는 “전제적인 백인의 긴 지배와 복으로부터 온 황인종의 짧은 점령 뒤에 외국압제자들로부터 자바가 영원히 해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신윤환 1991, 172-75).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일본점령의 충격을 네덜란드 식민시기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서술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의 통치방식은 조용하고 기업가적이며 부르주아 스타일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백인의 우월의식, 합리주의, 기술의 힘, 서구식 문명의 전파라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사명의 신화를 조작하였다. …… (그러나: 인용자) 1942년 이마무라(Imamura) 장군의 군사적 승리로 산산이 부서지는 타격을 받는데 이어서 강제수용소 안팎에서 당한 네덜란드인들의 굴욕은 이 오랜 신화를 없애버렸다. 그 대신에 새로운 신화가 출현했던바 그것은 정신력의 신화, 떠오르는 동양의 신화, 그리고 자기희생적 무용(武勇)의 신화였다(Anderson 1972, 31).

일본의 점령이 네덜란드 식민통치를 파괴했다면 일본의 패주는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한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항복은 일본 점령기를 기록한 빠파한(G. Pakpahan)의 말처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중대한 순간이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용감하게 사수할 것인가 아니면 350년간 경험한 방향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Pakpahan 1947, 141; Susanto 1995, 27에서 재인용).

이미 일본군의 동의 하에 1945년 8월 7일에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PPKI: 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가 설립되었는데, 8월 14일에 이르면 PPKI의 하타(Moh. Hatta)는 “독립이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자신

감을 피력했다(Susanto 1995, 24-25). 결국 1945년 8월 17일에 수카르노는 PPKI의 대표로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물론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1949년 12월에 네덜란드가 관할하던 모든 주권을 인도네시아 혁명정부에게 이양할 때까지 네덜란드와의 전쟁과 협상 즉 “민족혁명”을 거쳐야 했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은 독립이 선언된 1945년을 인도네시아 독립의 원년으로 삼고 기리고 있다.

이렇듯 일본점령기는 네덜란드 식민시대를 마감하고 독립에 이르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시기로서 인도네시아 근대사의 단절이나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일본점령기의 가장 현실적이고 빈번한 쟁점은 인도네시아 독립에 대한 일본의 기여 문제일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중학교 2학년용 『세계사 및 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거침없이 질문하고 있다.

동료들과 다음 문제에 관해 토론해 보라! 독립선언은 당시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PPKI)의 대표였던 수카르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PPKI는 일본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일본의 선물(hadiah dari Jepang)인가?(*Sejarah Nasional dan Dunia*, 77)

이른바 “해방사관”(解放史觀)에 입각한 일본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일본의 선물”이라고 답한다. 역사왜곡으로 비판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일본의 후소샤 출판사 간행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독립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주장하고 있다.

(대동아전쟁 초반의 대승리는: 인용자) 수 백 년에 걸친 백인의 식민지배에 고통 받던 현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일본의 서전 승리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인들에게도 독립의 꿈과 용기를 북돋웠다. …… 일본은 전쟁 목적을 자존자위와 아시아를 구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의 원조를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군대조직이 만들어졌다. …… 일본이 패전으로 철퇴한 뒤, 인도네시아에는 네덜란드가 식민지배를 재개하려고 복귀해왔다. 이에 대항하는 전쟁 중에 일본군에 의해 훈련된 인도네시아 군대가 중심이

되어 독립전쟁을 개시하여 1949년에 독립을 달성했다. …… 아들 지역(동남 아: 인용자)에서는 전전부터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군의 남방 진출은 아시아 제국이 독립을 앞당기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정영순 2001, 50-51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의 답변은 무엇인지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III.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기에 관해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역사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2001년판 고등학교 2학년용 『역사』(*Sejarah 2 untuk kelas 2 SMU: 이하 Sejarah*) 검인정 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를 소개하겠다. 이 교과서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기간이 3년 반에 그쳤지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행정과 군사적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면서 당시에 발생한 저항운동 및 독립준비 활동과 아울러 이 기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별도의 장을 두고 20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점령의 성격: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의 성격을 제국주의적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아시아인들을 위한다”는 슬로건의 허구성 또한 분명히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 하고 있다. 일본군정은 “아시아의 빛 일본, 아시아의 보호자 일본, 아시아의 지도자 일본”(Nippon cahaya Asia, Nippon pelindung Asia, dan Nippon pemimpin Asia)이라는 슬로건을 내용으로 하는 “3A운동”(Gerakan Tiga A)을 전개했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Sejarah*, 151).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은 일본군

의 진주를 처음에는 환영했으며 일본군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리라 기대하였다. …… 그러나 불과 몇 달만에 일본군은 점령세력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Sejarah*, 154).

일본은 제국주의로서 다른 식민주의 점령세력과 다른 점이 없었다. ……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이유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천연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다(*Sejarah*, 145).

일본점령기의 모든 행정은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이 인도네시아 민족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민족들을 서양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말들은 “단지 빈말(omong kosong)에 불과했다”면서(*Sejarah*, 145), 일본 점령에 따른 각종 피해를 거론하고 중국에는 네덜란드 식민주의보다 “훨씬 더 난폭한” 점령세력이었다고 단언하였다(*Sejarah*, 154).

경제적 피해와 강제노역: 역사교과서는 일본점령기의 경제적 피해에 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이 일본군에 의해 수탈당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민중들은 궁핍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수천 명이 굶어 죽는 등 사망자들이 일본점령기간에 계속 늘어났다고 비판하였다(*Sejarah*, 145-46). 또한 강제인력동원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주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미혼인 젊은이들이 약 30만 명이나 “로무샤”(romusha : tenaga kerja paksa: 강제노역자)로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뿐만 아니라 버마, 태국, 베트남, 말라야, 솔로몬 제도로 까지 끌려갔다.²⁾ 이동이나 작업 중에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수

2) 일본군정은 “총동원” 캠페인 기간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싸우는 병사들”(perajurit pekerja) 즉 “로무샤”(romusha)를 강제 동원하였다. 일본군정은 “로무샤”라는 말이 “쿨리”(coolie)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쿨리는 중국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쿠”(苦: 고통)와 “리”(力: 힘)의 결합어로 육체노동자들을 가리켰다. 반대로 로무샤는 “로”(勞: 노동), “무”(務: 임무), “샤”(者: 사람)의 결합어 즉 노동을 임무로 하는 사람을 뜻했다. 그러나 이런 언어 조작에도 불구하고 로무샤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경험을 통해 미숙한 노동자, 부당한 대접,

천 명이 끝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으며, 젊은 여성들도 노역과 군사훈련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야만적인 행위의 희생자”가 된 경우도 많다고 교과서에는 서술되어 있다(*Sejarah*, 146-47).

“일본화”와 군사화: 일본군은 인도네시아인들을 일본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개조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일본군은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천황숭배”(seikerei)를 강요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슬람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의례와 천황예배가 강요되었고, 네덜란드어 사용이 금지되고, 일본어 학습이 의무화되었다(*Sejarah*, 147). 한마디로 “일본군사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처럼 되길(일본화를) 바랬다”(Sejarah, 145).

14세에서 22세의 청년들은 “청년단”(seinendan : barisan pemuda)에 가입토록 하여 “일본 파시즘”을 배우게 하고 무기 사용법을 익히게 했다. 또한 학교정규교육에서도 군사훈련과 무기사용법이 학습되었다. 일본군의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조국방위대”(PETA : Pembela Tanah Air), “마을자위대”(Keibodan : 警報團), “보충대”(Heiho) 등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되고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Sejarah*, 148-49).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군사교육이 “일본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전 후에 되돌아온 네덜란드군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맞서고 독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역사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Sejarah*, 148, 149-50).

항일 투쟁: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이 점령군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냄에 따라 인도네시아인들의 “호응”이 줄어들고 1944년부터는 일부 지역

질병, 영양실조 등을 의미하는 말이 되면서 콜리보다도 더 나쁜 용어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한다(Shigeru 1994, 154, 258의 주1).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인들도 로무사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에서 “항쟁”(pemberontakan)이 발생하였으며 난폭한 일본군의 진압도 인도네시아 민중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었다고 기술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항쟁은 아체(Aceh)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건을 지휘한 이슬람 지도자 압둘 질릴(Abdul Jalil)은 총격전 중에 사망하고 몇 명의 일본 군도 사망했다. 또한 서부자바 수까마나(Sukamanah)의 이슬람지도자 무스 따빠(K. H. Jaenal Mustapa)는 일본군이 강요한 천황숭배(seikerei)가 이슬람에 배치된다면서 반대하고, 주민들에게 일본이 공포한 모든 법령들과 식량공출 및 강제노역을 거부하도록 종용했다. 일본군은 그를 체포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방어로 실패하자 대부대를 보내 수까마나 지역을 유린하였다. 결국 무스따빠는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아체 지역의 두꾸 하미드(Teuku Hamid)의 경우는 반란을 일으킨 뒤에 산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시도했지만,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일본군의 협박으로 인해 항복하였다. 가장 큰 반란은 동부자바 블리따르(Blitar) 지역의 조국방위대(PETA)가 일으킨 것으로서 이들은 자기 지역의 가족과 친지들의 곤궁을 목도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몇 명의 일본인을 살해한 뒤에 근처 산악을 근거지로 항쟁을 전개했으나 대규모 일본군에 의해 괴멸되고 55명이 체포되어 6명에게 사형이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되었다(Sejarah, 154-155).³⁾

민족주의자들의 협력: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점령기에 설립된 단체들이 “일본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조금도 인도네시아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이 피력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지배 아래서 형성된 “민족주의운동” 단체들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점수한 뒤에 모두 해산되고 일본을 지원하는 조직들로 대체되었으며 일본점령기에 “민족주

3) 그밖에도 서부자바의 인드라마유(Indramayu), 로호 브너르(Loh Bener), 그리고 신당(Sindang) 지역에서도 일본군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

의운동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식민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고 기술되었다(*Sejarah*, 145).⁴⁾

그렇지만 일본군정은 곧 민족주의자들을 군정에 끌어들이고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일본군은 식민정부를 운영하기에 턱없이 인력이 부족했고 3A운동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운동지도자들과 협력하고자 했다. 일본군정의 민족운동지도자들과의 협력은 민중들로부터 “호응”(simpati)을 얻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 식민시대에 유배되었던 수까르노, 하따, 샤흐리르(Syahrir) 같은 지도자들이 석방되었고, 민족지도자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수까르노와 하따 등 4인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이 이끄는 국민운동본부(Putera : Pusat Tenaga Rakyat)가 1945년 4월 16일에 건설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모든 활동은 일본군정의 감시 하에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으며 조금이라도 일본에게 해가 된다면 억압을 받았다(*Sejarah*, 148-49, 151).

이를테면 일본군정은 국민운동본부가 인도네시아인들을 서양에 반대하고 일본에 우호적이라도 이끄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면서도 그 활동이 일본정부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감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명색이 정부조직이었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서 재원을 자체 조달해야 했다. 국민운동본부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민중들과 소통 범위를 크게 확대하자, 일본정부는 이 조직이 일본보다는 인도네시아에 더 도움이 되는 조직임을 알아차리고 국민운동본부를 새로운 관변단체로 대체하고자 했다(*Sejarah*, 152).

흥미로운 점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군정 참여가 “독립투쟁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충분히 이로운 것이었다”고 역사교과서에 서

4) 교과서의 주장과 달리 일본점령기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단체 수와 조직율이 증대하고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조직이 중앙화 되는 등 단체활동이 네덜란드 식민시기보다 더 왕성했다는 주장이 있다(King 1982, 83). 서방에 대항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네덜란드 식민시기보다 이슬람교에 더 큰 자유를 부여했다는 점은 인도네시아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Susanto 1995, 17).

술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군정이 월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전해 왔기 때문에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일본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Sejarah*, 148-49, 151).

독립 선언: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이 미군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untuk mengambil hati) 장래에 인도네시아를 독립시킬 예정이라는 “약속”을 1944년 9월 19일에 발표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장기와 함께 하는 인도네시아 국기의 제양, 그리고 기미가요 제창 이후의 인도네시아 국가(*Indonesia Raya*) 제창을 허용했다(*Sejarah*, 156).

이후 민족운동지도자들은 독립준비를 본격화한다. 수카르노는 독립 인도네시아의 5가지 기본원리로서 **판짜실라(Pancasila)**를 창안하였다. 헌법초안위원회가 결성된 데 이어 21인의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PPKI: 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가 결성되고 이들의 활동이 1945년 8월 17일의 독립선언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Sejarah*, 156-159).

역사교과서에는 독립선언문 작성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기여는 장소제공에 한정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수카르노와 하파 등 PPKI 위원들의 독립선언문 준비가 일본해군 마에다(Maeda) 소장의 집 (Jalan Imam Bonjol No.1)에서 이루어졌는데, 마에다는 단지 회합장소를 제공하고 그 곳에 모인 민족지도자들의 안전을 보장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Sejarah*, 169).⁵⁾

5) 마에다(Maeda Tadashi) 해군소장이 민족지도자들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한 일과 관련해서 독립선언문의 문구에까지 마에다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간여했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일부 일본인 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학자들은 독립선언문은 인도네시아인들만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oetopo 1994).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는 일본점령기의 자원수탈, 강제노역, 일본화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일본군에 맞서는 항일투쟁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상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점령과 민족독립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인데 군사적 조직화와 훈련이 종전 이후 되돌아온 네덜란드군에 맞서 싸우는데 기술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민족운동지도자들이 일본군사정권과 협력한 것이 독립준비를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인도네시아 독립을 진정으로 후원했다거나 일본군의 독립 공약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민족주의운동 지도자들이 일본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일본의 각종 제한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전술을 구사한 덕분에 독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준군사조직과 군사훈련이 민족혁명의 기술적 자원이 되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대중들과 접촉하고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정의 선의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이다.

동남아연구가들에게는 일본점령기가 지역 역사의 단절적 계기였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무르익었던 반식민주의를 단지 가속화했을 뿐 방향을 바꾸어놓은 것은 아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다(에머슨 1992, 2, 17; 소병국 1995).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는 단절보다는 연속의 시각이 강한 것 같다.

IV. 일본점령기의 고통과 기회

1. 일본점령기의 피해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제점령기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해 볼 만하다. 하나는 일본점령기의 피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독립에 대한 기여 문제이다. 우선 일본점령기에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일본군정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제하부구조의 망실, 무리한 유통 통제, 일차산물 생산량 격감, 극도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었으며 그런 만큼 민생도 파멸해졌다는 일반적인 역사서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Cribb 1991, 42; 양승운 1995, 138-40). 강제노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점령기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징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 문제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찍이 일본에게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문제이다. 왜곡이 심하다는 일본 후소샤 교과서도 “전황이 악화되자 일본군에 의해 현지인이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정영순 2001, 51).

〈사진 1〉 뱍빠한(G. Pakpahan)의 『땡빛 아래 1261일』 표지



출처 : Susanto 1995, 27.

1947년에 발간된 이 책의 표지는 일장기를 상징하는 떠가운 태양아래 남루한 의복의 매마른 인도네시아 남녀가 강제노역에 종사하는 그림을 통해서 당시 민중들의 고통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일본점령기의 피해에 관한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여러모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에는 약 30만 명의 로무샤가 동원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일본 군정 자료를 검토한 일본인 연구자는 로무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1944년 11월의 시점에서 볼 때 자바에서 동원된 로무샤의 수가 2백 6십만 명 이상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약 두 달간 동원되는 한시적 로무샤까지 감안하면 1천만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무샤의 대다수는 자바의 농산물 증산 계획에 투입되었고, 대략 4분의 1이 여성이었다. 13만 내지 16만의 로무샤가 “죽음의 철도”라는 태국-버마간 철도 건설 사업 따위에 투입되기 위해 외국으로 보내졌으며 이들 가운데 15%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Sato 1994, 157-60). 이런 점에서 볼 때 로무샤의 규모와 운명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은 연구를 반영한 교과서 서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점령기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극단적인 예가 종군위안부의 경우였다. 한국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에는 여성들도 군사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일본군의 야만적인 행위의 희생자”가 된 경우도 많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여성들과 수용소의 백인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주군이안푸”(jugun ianfu: 종군위안부)는 식자층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이다.⁶⁾

1980년대 중반에는 인도네시아인 종군위안부의 비극을 다룬 <욕망

6) 네덜란드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사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1948년에 바파비아(현재의 자카르타)에서 네덜란드 여성의 강제 매춘에 관한 전범재판이 있었다. 일본군들은 이 사건을 ‘백마사건’이라고 불렀으며 52명 내지 100여명에 달하는 네덜란드 여성이 매춘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히스 1995, 65-76, 194-95). 또 얀 뢰프(Jan Ruff)라는 네덜란드 여성의 종군위안부 체험기 『50년간의 침묵』(50 Years of Silence)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출판되었다(Ruff-O’Herne 2001).

의 노예》(*Budak Nafsu*)라는 영화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작 상영된 바 있다. 이 영화에서는 위안부가 될 운명을 모른 채 인도네시아 십대소녀들이 일본군가를 합창하고 한 여인이 “대동아(Asia Timur Raya)의 강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설 때”라고 말하자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의 강토를 수호한다는 말이나”고 되받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의 말미에는 높고 병들고 가족을 잃은 주인공의 비참한 모습과 일본회사 광고 내온 사인들이 즐비한 자카르타의 오늘날 밤거리를 몽타주로 처리하고 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미성년자가 읽을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1958년의 배상협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관료는 “우리는 과거를 잊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다(히스 1995, 289).⁷⁾

그렇지만 최근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주목할 만한 주장이 인도네시아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족자카르타 법률구조재단(LBH Yogyakarta)이 주축이 된 대책협의회는 인도네시아인 중군위안부의 수가 1,156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들을 돕는 데 미온적이라고 성토했으며(*Kompas* 2001/08/15; *Kompas* 2000/11/15), 그 다음해에는 15명의 위안부출신 여성들을 대동하고 인도네시아의 역사교육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점령기 역사교육이 사회적 측면보다는 독립영웅들의 활약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등과정의 역사교과서에 속히 중군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

7)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한창 들쭉거리던 2001년 4월의 사건을 소재로 삼은 어떤 인도네시아 학자의 에세이에서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행동과 논쟁만 소개될 뿐 인도네시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서 충격적이었다(Anwar 2003).

에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고 장래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Kompas 2001/10/21). 그렇지만 2003년에 발간된 역사교과서(*Sejarah Nasional Indonesia dan Umum 2*)에도 위안부 문제는 삽입되지 않았다.⁸⁾

2. 일본군정과 민족독립의 상관관계

일본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후원했다고 주장할만한 역사적 근거가 적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자원의 활용은 전쟁수행에 필수적이고 독립정부의 수립은 정책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갖고 있었다. 버마, 필리핀, 인도의 경우와 달리 일본군은 패색이 짙어질 때까지 인도네시아 독립에 관해 도쿄, 사이공,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일본당국이 내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에 주둔한 육군과 해군 사이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일본군정은 거의 막판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공약한 1944년 9월의 코이소(Koiso) 선언에도 언제 어떻게 독립을 부여할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영토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에 관한 구상이나 합의도 없었다(Inomata 1987).

그러므로 일본점령기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위한 것이었지

8) 인도네시아에서 동원된 위안부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다. 1992년부터 1993년 사이에 시사주간지 『템포』(Tempo)가 위안부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는 40명만이 위안부라고 밝혔다. 일본군의 진술에 따르면 술라웨시 지역에만 280여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술라웨시의 위안부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이었지만 동부자바 수라바야(Surabaya)에는 한국인 위안부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위안부로 종사했던 이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출신만을 가려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에 관해 조사한 경험이 있는 조지 히스(George Hicks)는 보상금 문제와 연관되면서 필리핀과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위안부였다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가 정말로 위안부였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진짜 위안부였던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히스 1995, 159-60, 289-290).

인도네시아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민족독립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주도적 노력 덕분이었다는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전적으로 옳다.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설명처럼 인도네시아 연구가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일본군정의 정책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관한 것이다. 그 결과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고찰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교과서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우선 일본군정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에 대한 군사적 조직화와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훗날의 민족혁명을 위한 물리력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일본군이 조직한 조국방위대(PETA) 구성원의 상당수가 민족혁명 이후에 인도네시아국군(TNI)의 장교와 병사들이 되었다.

〈사진 2〉 조국방위대(PETA) 훈련장면 (자카르타 김비르)



출처: Susanto 1995, 10.

인도네시아 사회를 마을단위까지 조직하고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네덜란드시대의 정치적 고립과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으며 주도적인 행동을 취할 때라고 고무함으로써 민족혁명의 조건을 형성해 주었다(Ricklefs 1993, 199, 211). 일본군은 조국방위대와 같은 광역단위 조직 뿐만 아니라 마을자위대(keibodan)와 청년단(Seinendan)처럼 준군

사조직을 마을단위까지 조직해 들어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회는 기초단위까지 군사화 되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군은 교육적 필요성 때문에 광역단위 조국수호대와 마을단위 조직들 사이의 접촉 기회를 주었는데 이는 교육받은 민족주의자들과 전투적인 마을 청년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훗날의 민족혁명 과정에서 대중동원의 통로로써 이용되게 되었다(Cribb 1991, 40-43).⁹⁾

인도네시아 교과서 역시 일본점령기 군사조직화가 독립에 유용했다는 점을 두 번씩이나 인정하고 있지만 문화적 측면보다는 군사조직과 기술적인 측면의 효과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학계에서 종종 거론되는 문화적 측면의 영향은 논의를 피하고 있다. 이를테면 밀턴 오스본(Milton Osborne)은 일본인들이 무력을 찬양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선보임으로써 청년들이 복종과 온순을 강조하는 자바의 문화적 전통을 재고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전투적인 신세대가 인도네시아 독립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기술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학계에서는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오스본 2000, 198).

당시 청년 세대에 관한 한 예로 두 번째 대통령 수하르토(Suharto)를 이야기할 수 있다. 네덜란드령인도제국군(KNIL)의 하사관이었던 수하르토는 일본군이 진주하자 지방경찰을 자원하여 3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족자까르마 지방경찰서에 보좌역으로 채용되었다. 그후 조국방위대(PETA)의 장교가 되기 위해 9주간의 교육 훈련도 받았다. 이 기간에 수하르토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일본식 관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군의 인종주의적 멸시와 혹독한 처우를 받으면서 일본에 대한 투쟁의지도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당시 일반적인 청년들처럼 일종의 “전투적 민족주의”를

9) 일본군정의 마을단위 조직화로 인해 기초단위의 민중조직이 강화되고 마을사람들이 조직적인 생활을 익히게 되었다. 특히 1944년부터는 일본의 마을 조직을 본 따서 10-20개 가구를 하나로 묶는 마을조직(rukun tetangga)을 형성하고 대표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군정의 의지를 마을사람들에게까지 관철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마을 조직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Cribb 1991, 40-41).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조국방위대의 다른 요원들처럼 인도네시아국군의 장교가 되었다(Elson 2001, 9-12). 그러나 일본점령기에 인도네시아의 중심문화인 자바 문화가 재고되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북한 주장임에 틀림없다.

〈사진 3〉 자카르타 청년들이 독립선언 직후에 배포한 포스터



출처: Susanto 1995, 36.

팔뚝에 사슬을 끊고 인도네시아 깃발을 든 청년이 '동지여, 자 동지여'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전투적인 청년세대가 민족혁명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로 검토할 주장은 일본점령기가 민족주의자들의 리더십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에도 일본군정과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소 포섭적인 문화통치 역시 친일본자를 양산하여 민족을 이간시켰다는 한국의 국사교과서 서술과는 사뭇 다르다.

로버트 크립(Robert Cribb 1991, 38)의 표현처럼 “새로운 주인”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다. 일본은 유배된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하고 독립을 약속하면서 이들의 정치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민족주의지도자들은 조직을 만들고 지휘계통을 수립하며 몇몇 일본군 지휘관들의 호의적인 묵인 하에 심지어 독립을 옹호하는 방송을 통해 민족주의적 목적을 추진할 수 있었다(오스본 2000, 197). 수카르노가 탁월한

웅변술과 수사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를 누리게 된 것도 이 시기였고, 덕분에 독립 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로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신윤희 1991, 175).

일본점령기 동안에 수카르노가 “도전받을 수 없는 국민적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수카르노 전기에서 리그(J. D. Legge)는 그의 정치적 성공에 있어서 일본의 후원보다는 수카르노의 재능이 더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수카르노를 일본이 양육했다기보다는 수카르노가 일본점령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재능을 소유했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일본점령기는 인도네시아 민족주의를 새롭고도 예견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갔다. …… 새로운 상황은 수카르노의 특수한 재능과 잘 맞았다. 일본은 고도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통치했고, 대대적인 의례와 이데올로기적 교리를 동원하고, 대중조직을 활용했는데 이는 비정치적인 (혹은 반정치적인) 네덜란드통치 시기보다 수카르노에게 더 잘 어울렸다(Legge 2003, 173).

리그는 수카르노를 친일로 몰아붙이기에는 그의 독립에 대한 공헌이 너무나 탁월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당시 협력이나 저항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열악한 수준의 지하조직들은 극히 미미한 역할만을 수행한 반면에 수카르노는 민족혁명의 전도를 닦았다. 수카르노는 라디오 방송 및 공식적 대중연설의 기회와 자바전역에 대한 여행의 자유를 적극 활용하여 “권력대안”을 형성해 나갔다. 조국수호대(PETA)가 혁명의 물리력이 되고, 지방위원회가 지방정부의 행정적 모태로 자리 잡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결정적 수단으로서 인도네시아어(Bahasa)가 확산된 것은 일본의 시혜가 아니라 “정치술의 저장” 수카르노의 협상력과 기동성 덕분이었다는 것이다(Legge 2003, 204-205).

〈사진 4〉 로무사들을 독려하는 수까르노: 일본군정 선전용 포스터



출처: Susanto 1995.

수까르노는 500명의 지식인들과 한시적인 로무사로 일한 적이 있다. 일하는 도중에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약속한 코이소선언에 관해 전해 듣고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Inomata 1997, 100).

수까르노와 민족주의자들은 연합군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1944년에 연합군이 마닐라를 함락시켰으며 전세가 일본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까르노는 일본군 치하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성사되는 것이 나중에 승리한 연합군과 독립을 협상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았다. 수까르노는 일본당국이 독립에 관해 이러저러한 논란으로 시간을 끌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들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구나 라디오 등 이것저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밀짚 돛자리 하나만 갖춘 집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1945년 7월 10일에 수까르노는 “가능한 한 빠른 인도네시아의 독립”(Indonesia merdeka secepat-lekasnya)을 내용으로 하는 용감하고 긴 연설을 했다. 민족주의자들의 초고속 독립 논의는 지도자들간의 지리한 논쟁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군정의 예상을 뒤엎었고 지역별로 점진적인 독립으로 이끈다는 군정의 계획을 파산시켰다. 결국 독립준비과정의 주도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도네시아측에게 넘어가 버렸으며 그 성과가 1945년 8월 17일의 독립선언이었다(Inomata 1987, 101-102, 110, 112).

V. 결론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는 3년 반의 일본점령기를 역사상 심대한 영향을 준 중요한 시기로 보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탈, 강제노역, 문화개조, 군사훈련으로 민중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소개하면서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보다 일본군이 더 “난폭했다”(kejam)고 평가하였다. 또 인도네시아의 해방을 지원한다는 일본군의 담론들은 “빈말”(omong kosong)일 뿐이었으며, 일본군에 맞서는 항일투쟁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상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의 성격을 해방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제국주의 점령군으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스스로의 필요에 입각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을 군사훈련시키고 군정을 보좌하도록 민족지도자들을 끌어들이는 점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이로운 효과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그다지 놀랍지 않다. 물론 이런 점에서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서술은 민족지도자들의 협력보다는 저항을 높이 평가하여 ‘친일파’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병참기지화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보는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서술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간단히 답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원래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양국간에는 민족독립과 방어의 도정이 달랐다. 일본 패전 이후 네덜란드가 승전국으로서 인도네시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대를 다시 투입시켰을 때, 이 구식 민세력과 인도네시아인들이 4년간 맞서는데 일본점령기에 강화된 민족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청년들의 준군사조직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는 일본점령기의 기술적 효용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독립과정에서 일본의 기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규정하면서 독립의 직접적인 동인은 민족지도자들의 노력과 민중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역사학적 논쟁의 측면에서 보면 ‘단절’보다는 ‘연속’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본군을 제국주의 점령세력으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허구를 적시하며 일본점령에 따른 경제적 인적 손실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역사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에 일본점령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위안부 문제처럼 일부 사안에 대한 서술이 회피되고 있는 점은 개선될 부분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역사교과서

- Sejarah 2 untuk kelas 2 SMU* [고등학교 2학년용 역사교과서]. Jakarta: Yuhistira, 2001.
- Sejarah Nasional dan Dunia untuk Sekolah Menengah Pertama Kelas 2* [중학교 2학년용 세계사 및 국사교과서]. Jakarta: Balai Pustaka, 1996.
- Sejarah Nasional Indonesia dan Umum 2 untuk SMU Kelas 2* [고등학교 2학년용 국사 및 세계사 교과서]. Jakarta: Erlangga, 2003.

2. 일반문헌

- 소병국. 1995. "일제하 동남아 연구의 동향과 전망." 김성원 외. 『일제하의 동남아』. 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 신윤환. 1991.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독립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0: 제국주의와 아시아의 민족운동』. 국사편찬위원회.
- . 1999. "네델란드의 인도네시아 통치." 『전통과 현대』 10.
- 앤더슨, 베네딕트. 신윤환 역. 1992. "오래된 국가, 새로운 사회: 비교사적 시각에서 조명해 본 인도네시아의 신질서체제."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동남아 정치와 사회』. 한울.
- .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 양승운. 1995. "일본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국가통일과 이슬람분열의 양면성." 김성원 외. 『일제하의 동남아』. 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 에머슨, 도날드. 윤진표 역. 1992. "동남아시아 역사해석의 문제."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동남아 정치와 사회』. 한울.
- 오스본, 밀턴. 조홍국 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 유인선. 1989.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아세아연구』 32(2).
- 정영순. 2001. "극동, 동남아시아 3국 역사교과서 상호 관련내용 분석: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34.
- 히스, 조지. 전경자 역. 1995. 『위안부: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창작과 비평사.

- Anderson, Benedict R. O'G. 1972. *Java in a Time of Revolution: Occupation and Resistance, 1944-1946*.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Chapter 3.
- Cribb, Robert. 1991. *Gangsters and Revolutionaries: The Jakarta People's Militia and the Indonesian Revolution 1945-194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lson, R. E. 2001. *Suharto: A Political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omata, Aiko Kurasawa, 1987. "Indonesia Merdeka Selekas-Lekasnya: Preparations for Independence in the Last Days of Japanese Occupation," Taufik Abdullah ed. *The Heartbeat of Indonesian Revolution*. Jakarta: Gramedia and LIPI.
- King, Dwight Y., 1982.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Linkage in Indonesia 1800-1965*.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hapter 4.
- Legge, J. D. 2003. *Sukarno: A Political Biography*. Third Edition.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Ricklefs, M. C. 1993.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 1300*.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 Shigeru, Sato. 1994. *War, Nationalism and Japanese Occupation: Java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1942-1945*. Ammonk, New York, London: M. E. Sharpe.
- Soetopo Soetanto. 1994. "The Japanese Occupation and Indonesian Independence: some Versions concerning Formulation of the Text of Proclamation." Paper Presented for the 13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istorians of Asia, Sophia University, Tokyo, September 5-9.
- Yoshitada, Murayama, 1993. "The Pattern of Japanese Economic Penetration of the Prewar Netherlands East Indies." Saya and Takashi Shiraishi ed. *Japanese in Colonial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Anwar, Ratih Pratiwi. "Kontroversi Buku Teks Sejarah Jepang: Fakta Sejarah vs Pendidikan Sejarah (일본 역사교과서 논쟁: 역사적 사실 대 역사 교육)." <http://www.caps-ugm.com> (검색일: 2003년 7월 30일)
- Budak Nafsu* [욕망의 노예]. Jakarta: Sky Vision (VCD 극영화).

- Kompas*, 2000/11/15. "Aktivis Perempuan Jengkel Pemerintah tidak Serious Bantu 1,156 'Jugun Ianfu' [정부가 1,156명의 '종군위안부'를 돕는 데 진지하지 못하다고 여성운동가가 비판했다.]; 2001/08/15. "Depsos Diminta Selesaikan Masalah Jugun Ianfu [사회부는 종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01/10/21. "'Jugun Ianfu' Segera Masuk Pelajaran Sejarah ['종군위안부' 문제가 역사교육에 속히 포함되어야]."
- Ruff-O'Herne, Jan. 2001. *Rintihan dalam Kebisuan* [침묵속의 신음]. Jakarta: Progres.
- Susanto Zuhdi. 1995. *Jakarta, Kota Proklamasi Januari 1945 - Januari 1946* [자카르타, 선언의 도시, 1945년 1월에서 1946년 1월까지], Pemerintah Daerah Ibukota Jakarta(수도 자카르타 지방정부).

Analyses of Indonesian History Textbooks on the Japanese Occupation

JEON Je-Seong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The Japanese Occupation in Indonesia from March 1943 to August 1945 might be seen as a 'dual image'. First as an invader interested with natural resources, second as the incubator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National Revolution. How do Indonesians interpret the dual image of Japanese Occupation? This article is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the analysis of history textbook in Indonesia.

The Indonesian history textbook for high-school students described the Japanese Occupation as an attempt to mobilize the natural resource and labor(*romusha*); however it accepted that the occupation acted as a catalyst to military training to the young people and cooperation with Indonesian nationalist leaders such like Sukarno and Hatta. Interestingly, the textbook declared the useful outcomes of occupation towards the independence another result of the occupation, not intended by Japanese authorities, but utilized by Indonesian nationalist leaders.

The imperialist nature of Japanese army and strategic wisdom

of Indonesian nationalist leaders are highlighted in the Indonesian historical perception because every useful resource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as interpreted as 'unintended result' of Japanese authorities. However, the pain and damage of the people in that period has to be researched more seriously to overcome the biased historiography dominated by heroism or elitism.

Keywords : Japanese Occupation, History Textbook, National Revolution,
Sukarno, Indonesia